

# APEC 제10주



유 하상

# 제3장 APEC

## 1. 명칭 및 창설일자

- 명칭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창설일자 : 1989.11. 6.

## 2. 의 의

- APEC은 자발적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회원국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후생증진과 궁극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수립의 토대를 마련

## 3. APEC 협력목표

- APEC의 장기비전 : 아·태공동체의 달성-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
- 1994년 정상회의 : 보고르목표(Bogor Goal)을 채택 :
  -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시한으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함.
  - 이행프로세스로서 APEC은 보고르 목표로 대표되는 무역과 투자자유화(TILF)와 함께 경제기술협력(ECOTECH)을 양대 축으로 설정하여 운영

## 4. 출범배경

- 1970년대~80년대 세계를 풍미한 보호주의 추세와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하고 GATT 정신을 기초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며, 아·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의체로 1989년에 설립
- 1960년대 : 아시아 태평양 사이에 지역경제 협력문제가 논의시작
- 1967년 :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BEC) 민간과 학계를 중심 설립
- 1980년 :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창설, PBEC에 정부관리가 참여
  - 지역경제협력에 대한 관심 확대.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선진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냉전체제하의 독자적인 발언권 확보에 제약이 있어 독자적인 경제협력기구 창설에는 어려움이 많았음.
- 1980년대 : 세계질서가재편기
  - 미국과 유럽은 자국 경제 불황을 회복하고자 자국시장 보호/개도국 시장 개방 압력, NAFTA와 EU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심화현상이 가속.
  - 냉전 종식 후 세계 질서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현상 가속.
  - 한편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심화되는 상호의존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
- 1989.11.6~7 제 1차 APEC 각료회의(캔버라) 개최
  - APEC 공식 출범 및 APEC 원칙 채택
  - 한·미·일·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 등 총 12개국 참가

## ● 보고르 선언의 내용

- 1994년 제2차 정상회의(1994, 인도네시아 보고르)
- APEC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의 목표 연도를 설정
  -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기술협력(ECOTECH)는 APEC의 양대 지주로 정착.
- 회원국 간 경제발전의 상이한 수준을 고려하여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한다.
- 협상 결과의 이행 및 WTO 체제의 성공적인 출범을 촉구한다.(개방적 다자무역제도의 강화지지 표명, 무역 및 투자 제한조치의 동결 합의)
- 무역, 투자 원활화를 위한 제반 조치 강구를 각료들에게 지시한다.(관세, 표준, 투자원칙 및 시장접근의 행정적 장애 완화)
- 역내 발전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인력개발, APEC 연구센터 활성화, 과학기술협력, 중소기업 육성, 에너지, 수송, 정보통신, 관광 등 경제적 인프라 조성)
- WTO 분쟁해결 제도를 보완한 APEC 분쟁조정 제도 마련을 검토한다.

## ○ 오사카 선언의 내용

- 제3차 APEC 정상회의(1995, 일본 오사카)
-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오사카 행동지침)이 채택. TILF와 ECOTECH 두 부분으로 구성

### 가)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

- 10개 일반원칙 : 포괄성, WTO 협정과의 합치성, 비교성, 무차별성, 투명성, 보호 장벽의 현상 동결, 동시착수/지속추진/차별적 시간계획, 경제와 기술협력 추진, 적합성/점진성/효율성
- 15개 분야별 자유화와 추진 일정 제시 : 관세와 비관세 조치, 서비스, 투자, 표준적합,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규제완화,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WTO의 이행, 분쟁조정, 기업인 이동, 정보수집과 분석, 법과 제도 정비

### 나) 경제와 기술협력(ECOTECH)

- 목표 : 회원국 간 경제 불균형 해소, 역내 주민의 복지개선, 지속성장
- 대상 분야 : 농업기술협력, 에너지, 어업, 인적자원개발, 산업과학기술, 인프라, 해양자원 보호, 중소기업, 정보통신, 무역진흥, 교통
- 분야별 사업추진 방향 제시 : 공동정책 개념 정립, 협력사업 및 정책대화 추진

### III. 회원국 현황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담으로 출범,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매년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

12개국으로 출범. 현재는 총 21개국, 이밖에 옵서버로서 ASEAN사무국,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남태평양포럼사무국(SPF)이 있음. 현재까지 신규 회원국 가입 잠정 중단 (Moratorium)

	가입국수	가입국
APEC 출범 (1989년)	12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6개국(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1991년	3	중국, 홍콩, 대만
1993년	2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	1	칠레
1998	3	러시아, 베트남, 페루
	21개국	

## IV. APEC 운영체제 및 현황

-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하지 않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기구를 확대·개편해 가는 발전적 협의체

### 1. APEC 정상회의(APEC Leaders' Meeting)

- 1993년 제5차 각료회의(미국 시애틀) 이후 최초로 개최/ 매년 개최, /각 회원국 정상들이 공식적인 의제 없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의 비전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등 의전의 성격이 강한 회의

### 2.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 APEC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실질적인 영향력/,
-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시기에 즈음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연1회 개최/
- 각 회원국의 외교·통상 및 경제담당 장관들이 참석/APEC 의장국의 장관이 의장 역할 담당
- 실무자급 회의인 고위관리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검토, 승인하고 APEC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지침을 제시.

### 3. 분야별 장관회의

- 분야별 고위관리회의와 병행해서 개최
- 분야별 실무그룹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이들의 사업성과를 평가/ 새로운 지침과 방향을 제시. 분야별 장관 회의 결과는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보고

### 4.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 Meeting, SOM)

- 각료회의와 경제지도자 회의를 앞두고 그 해 APEC 의장국에서 3~5회 정도 개최
- 실무자금 준비회의의 성격
- 대개 2월/6월/8월에 3차 회의가 열리는 것이 보통
- 각료회의에서 다룰 주요 안건들에 대해 사전 의견조율
- 고위관리회의 산하 위원회들의 활동과 실무그룹의 협력사업 진행 상황 및 새로운 협력분야나 정책내용을 검토/각료회의에 보고

## 5. 위원회 (Committee)

### ●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CTI) :

-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에서 설립/ 매년 3차례 회의/  
●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부문의 이행과 조정역할 수행/정상과 각료 및 고위관리 회의(SOM)에 보고,  
● 산하 2개의 소위원회(통관절차, 표준적합)와 6개의 전문가 그룹(시장접근,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업인이동), 1개의 Workshop 그룹(경쟁정책/규제완화)이 구성되어 구체적인 무역·투자 부문의 자유화 및 원활화 작업을 수행.

### ●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 :

- 제6차 자카르타 각료회의(1994)에서 설립/매년 2차례(SOM1,3 개최시) 회의 개최.  
● 개별 위원회나 실무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 분야에 걸친 이슈(cross-cutting issue)'에 대한 분석적 연구 작업을 수행. 연구결과를 각료와 정상에게 보고.

### ● 예산운영위원회(Budget and Management Committee: BMC) :

-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1993) 결정에 따라 설립. 매년 3-4월중, 6-8월중 2차례 개최  
● SOM의 위임에 따라 APEC 예산안 작성, 분담금 책정, 예산집행의 검토와 행정·운영의 효율성 증대 방안을 마련.

### ● 경제기술협력 위원회(SOM Committee on Ecotech: ESC) :

- 1997년 밴쿠버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 결정에 의하여 설립, 매년 3차례 회의 개최.  
● SOM을 보좌/경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을 검토/SOM에 정책방향을 권고.

## 6. APEC 실무그룹(Working Group)

- 회원국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업별로 그룹을 형성
- 구체적인 사업 수행 및 실질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기구
- 회원국 공동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회원국간 갈등의 소지가 적으면서 비교적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문 11개를 중심으로 구성
-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및 각료회의에서 제시되는 지침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과제를 수행/새로운 과제들을 계획

### 11개 실무그룹

- 에너지(EWG), 정보통신(TEL), 해양자원보존(MRC), 인적자원개발(HRD), 무역진흥(TP), 산업과학기술(IST), 교통(TP), 관광(TWG), 어업(FWG), 중소기업(SME), 농업기술협력(ATC), 교역 및 투자 데이터 검토(TID)

## 7. 기업인 자문회의(ABA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PEC 활동의 수혜자인 민간/기업 부문의 입장을 직접 반영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95년 오사카 APEC 정상회의의 합의에 따라 96년 4월에 출범
- ABAC 위원 구성 : 각 APEC 회원국이 자국의 저명한 기업인 3명(중소기업 대표 1명 포함)을 임명.
- 매년 APEC 정상회의 직전 ABAC 위원과 APEC 정상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정상들에게 ABAC 보고서를 제출/민간/기업인들의 관심 및 요구사항을 전달.

## 8. APEC 현황

- 상설 사무국 : 싱가포르 (93.2.12 설치),
- 경제규모
  - 전세계 GDP의 약 60.4%, 교역량의 약 46.9%를 점유하는 최대의 지역 협력체
  - 총면적 : 약 6,261만 km<sup>2</sup> (전세계의 46.8%)
  - APEC 총인구('02) : 약 25.9억명 (전세계의 42.0%)
  - 총 GDP('02) : 약 19조500억 US\$ (전세계의 60.4%)
  - 총교역량('02) : 약 6조1,130억 US\$ (전세계의 46.9%)

# APEC 조직도

## 분야별 장관회의

- 통상장관회의
- 재무장관회의
- 중소기업장관회의
- 정보통신장관회의
- 교통장관회의
- 인력개발장관회의
- 에너지장관회의
- 관광장관회의
- 보건장관회의
- 과학기술장관회의
- 교육장관회의
- 여성장관회의
- 해양장관회의
- 환경장관회의
- 광업장관회의

APEC 정상회의  
(AELM)

APEC 기업인 자문  
위원회(ABAC)

외교-통상 합동각료  
회의(AMM)

고위관리회의(SOM)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경제·기술협력  
운영위원회(SCE)

무역·투자 위원회  
(CTI) PEC 조직도

## 11개 소위원회

- 표준·적합(SCSC)
- 통관절차(SCCP)
- 시장접근(MAG)
- 서비스(GOS)
- 투자(IEG)
- 지식재산권(IPEG)
- 정부조달(GPEG)
- 기업인이동(MOB)
- 경쟁정책·규제완화(CPDG)
- WTO 능력배양(WTOCB)
- 경제법 인프라강화(SELI)

## 11개 실무그룹

- 에너지(EWG)
- 수산(FWG)
- 인력자원개발(HRDWG)
- 산업과학기술(ISTWG)
- 해양자원보존(MRCWG)
- 정보통신(TELWG)
- 무역진흥(TPWG)
- 교통(TPTWG)
- 관광(TWG)
- 농업기술(ATCWG)
- 중소기업(SMEWG)

## SOM 특별그룹

- 대테러(CTTF)
- 반부패(ACTF)
- 보건(HTF)
- WG로 변경 예정
- 긴급사태(TFEP)
- 여성(GFPN)
- 전자상거래(ECSG)
- 문화(CFPN)
- 광업(MTF)-신설예정

## V. APEC의 특성

1. 아·태 경제공동체의 점진적 달성 추구 : 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실현을 목표, 중 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 관광,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진
2.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표방 : 아·태지역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양. APEC 역내 자유화 조치의 혜택을 역외국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부여함으로써 다자무역체제 강화
3. 발전적 과정 (evolving process) : OECD나 WTO 등과 같이 형식적인 틀을 가진 기구로 출범하지 않았음. 창설 당시 아·태협력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합의하였으며,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마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도 발전 단계에 있는 협의체라 할 수 있음
4. 전원합의(Consensus)에 입각한 의사결정 과정 : 첨단 기술, 1인당 GNP가 3만 달러의 고도산업 국가로부터 1인당 GNP가 300 달러의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 단계에서 큰 차이, 경제구조나 역사, 문화 등에 있어 다양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협력을 추구하며, Consensus에 의한 의사결정원칙.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 참여 또는 이행을 중시 정상회의는 Retreat 형식으로 진행, 정상들 간에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협의, 보다 내실 있는 결과 도출에 역점
5. APEC 중장기 무역·투자 자유화의 원칙 :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에 따라 선진 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 19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이 채택. 1996년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자유화 행동계획이 채택, 각국은 이 행동계획에 따라 자유화 이행

## Ⅷ. 문제점과 향후전망

### 1. APEC의 문제점

#### (1) 주도력의 부재 문제

- (2) APEC의 발전을 확대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도력(leadership)의 존재가 필요. 그러나, 어느 국가도 주도력의 발휘에 필요한 비용, 즉 공공재(public good)의 과도한 부담을 감수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차이가 경제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음.
- 미국은 비용 효율성 면에서 비용부담을 회피, 일본은 역사적 사실로부터 연유되는 정당성의 부담과 함께 국내시장의 폐쇄성, 역내 국가와의 점증되는 구조적 무역적자 및 기술이전의 회피 등으로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

#### (2) 亞 太지역의 문화적 특성 문제

- 역내 국가에 존재하는 경제발전의 격차/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존재/ 다자간 경제협력을 촉진케 하는 결속력 차원의 문제 존재
- 협상문화의 이질성 : 유럽(공개적, 공식적인 협상 문화) vs 아태 지역(비공개적이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접근과 이해를 중시) 다자차원에서의 이해수렴과 결정에 상당한 시간과 주의가 필요한 상황.

### (3) 회원국의 기준 문제

- 亞 太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의는 아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으므로, 향후 회원국의 문제는 그 기준과 관련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로 등장
- 즉, 12개국으로 출발한 APEC이 18개국으로 확대되어 오는 과정에서, 중국,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및 칠레 등 다양한 소지역적 범주의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음에 비추어, 향후 인도, 베트남, 페루 및 러시아 등 다수의 회원국 가입 희망국들을 어떠한 지역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 이는 다자지역 협력체로서의 APEC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의 적정 규모 문제와도 연결, 또한 각국의 양자차원에서의 정치 경제적 이해와도 연계되어 있으며, NAFTA, ASEAN 등 다양한 소지역적 틀과 APEC의 범지역적 틀간의 관계를 여하히 설정하느냐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으므로, 그 해법의 발견이 어려움
- 또한 역내 무역 투자 자유화의 성과를 역외 국가들에게 여하히 개방하느냐의 문제는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원칙과 직면되어 있는 문제로서, 회원국의 정의 문제는 이러한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 (4) 선진국.개도국간 입장차이 상존

- 선진국 : 무역.투자 자유화 촉진을 통한 시장개방
- 개도국 : 경제기술협력확대로 실질적 혜택 도모

## (5) APEC의 유용성 및 신뢰도에 의문제기

### - 자발적 방식의 무역·투자 자유화추진에 한계

- 본래 목적인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모든 결정을 WTO로 넘긴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의 성찬만 있었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음. 너무도 공통점 없는 국가들로 구성된 근본적 한계를 지적

### - 역내 금융위기 발생이후 효율적 대응방안 미흡

-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미국과 IMF만 바라보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함, APEC 무용론 제기, APEC은 단순히 미국이 아태지역 특히 중국을 컨트롤 하는 수단이라는 비난이 나옴

### - 협의 기구적 성격을 갖고, 결속력이 약함

- 모두 선언, 원칙적 합의뿐이며 이행이 없다는 점.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얽메이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안이 난무하는 백가쟁명의 장같이 되어 버림. 아울러 일본,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같은 농업 국가간의 갈등도 존재.
- 아시아 금융위기 발발 이전까지만 해도 APEC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선도하면서 전 세계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그러나 금융위기 발발 이후 APEC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속도와 추진력이 급격하게 약화. APEC은 무역 자유화 논의의 주도권을 WTO에 넘겨주었으며 현재는 WTO 협상의 보조자로서의 역할만 수행

## 향후 전망

- 2010년은 APEC의 장래에 중요한 해가 될 것임. 보고르 선언에서 선진국은 2010,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 만약 선진국들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APEC은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임. 이는 곧 APEC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음.
- 또한 APEC 회원국들이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증가함으로써 APEC의 위상과 역할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 회원국들이 WTO나 APEC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그렇다고 하여 APEC의 존재이유와 중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무역과 투자 자유화가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WTO 협상 타결을 기다리거나 WTO 협상 개최를 이유로 보고르 목표 달성을 포기해서는 안 됨.
- APEC은 조정기능의 강화, 회의 참석 대상 인원의 축소,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에 대한 비중을 강화하는 등의 개혁조치가 필요.
- 선진국들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본보기를 보여야 하며 개도국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및 기술부문에서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함.
- 이 같은 기능들은 WTO가 담당할 수 있는 기능들이 아님. 따라서 APEC은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보고르 목표가 실현된 이후라도 역내 국가간 경제협력 증진 기능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

## AFTA

아시아권에는 경제통합체의 결성이 없었고, 다만 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SAARC(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의 특혜무역협정이 있음

ASEAN은 인도네시아의 제안으로 설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의 9개국.

ASEAN은 초기단계에서 주변 강대국의 영향권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함과 동시에 미소냉전시대의 냉전체제로부터 탈피하여 독자노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치·안보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점차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의 경제문제로 중심이 이동,

EU와 같이 경제통합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일종의 개발 지역주의의 한 형태.

따라서 ASEAN은 경제통합 단계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초보적인 특혜무역지대(PTA: Preferential Trade Arrange)의 구축을 통한 역내 무역활성화에 목적

AFTA란 ASEAN 9개국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

즉 지금까지의 특혜무역지대로부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상

## ASEM(Asia-Europ Meeting) 아시아-유럽 회의

그 동안 아시아와 북미(APEC), 북미와 유럽(TAFTA)에 비해 경제협력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진하였던 동아시아와 EU간의 지역간 협력 관계를 보완하고자 시작 1996년부터 시작된 정상회의를 통해 정치, 안보 및 경제협력을 강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역내교역 증진을 위하여 APEC과 마찬가지로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T)을 마련하는 등 활발하게 발전

그러나 EU가 추진하고 있는 대아시아 중시정책은 1차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갖는 역동성에 따라 이 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 강화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므로 아시아의 입장에서 충분한 대응논리의 개발이 필요.

특히 우리나라는 ASEM이라는 새로운 지역협력의 장을 확보함으로써 대외교섭력의 강화, 해외시장의 유지 확대, 산업협력의 확대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